

도리도리 산타페

도리도리 산타페(TORI TORI Santa Fe)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유명한 일본 음식 전문점의 6 번째 매장으로, 이번 지점은 산타페지구의 한 회사건물 1층에 위치해 있다. 일본 공예기술의 섬세함과 장인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차분한 단색성의 분위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다. 영감의 구현은 성공적인 듯하다. 언뜻 보면 일본의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일본적 색채가 확연하다. 텀가시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매달아 놓은 두 개의 요소가 차분한 공간의 분위기와 더불어 매장의 규모를 돋보이게 한다. 거대한 크기와 대담한 표현으로 만들어진 오브제의 질감은 사무라이의 갑옷, 특히 일본어로 '도'라고 부르는 흉갑을 연상시킨다. 이 요소들 중 하나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을 위한 영역을 표시한다. 둘 중 큰 것은 원통형의 배출 후드로, 테판야끼(철판구이) 테이블 위로 솟아 있는데, 그 규모 덕분에 레스토랑의 두 기둥을 정의하고 경계를 정하는 조명 오브제로 변한다. 스시 바가 마련된 메인 벽체는 얇은 부조로 마감되었다. 이 부조는 순수한 기하학적 그래픽으로 표현된 간지(干支) 문자의 추상적 양식화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다. 중심 영역 이외에도, 레스토랑은 테판야끼 테이블이 놓인 테라스와 개별전용 식당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규모 그 이상의 공간감을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TORI TORI Santa Fe精品日料餐厅

Tori Tori Santa Fe是墨西哥城著名日本餐厅连锁店的第五个项目，它位于圣达菲(Santa Fe)社区的公司大楼一楼。该项目受到日本工艺精巧和细腻启发，弥漫着沉静的单色氛围。这种灵感的表达似乎是成功的。一眼望去好像日本设计工作室的设计，具有明确的日式色彩。设计师通过两个橡树模样的悬挂元素来强调卖场的沉静氛围和空间的规模。它的质地和大胆的表现手法，让人联想起武士铠甲的构造，尤其是一种在日文中叫做“do”的铠甲。这些元素之一构成了一个外卖食品空间，叫做“马上带走”。两者中比较大的一个作为排风罩，矗立在铁板烧主桌的上方，其规模定义了餐厅的两根柱子，化身为确定边界的照明装饰。寿司吧的主墙以浅浮雕作为外饰，这些浅浮雕以单纯的几何图形表达干支文字的抽象形式为核心进行了设计。除了中央区域之外，该餐厅还设有带铁板烧餐桌的露台和供食客使用的私人区域。可以说，这个地方是体现空间感超越规模的成功案例。

TORI TORI Santa Fe

Design Esrawe Studio www.esrawe.com
Location Mexico City, Mexico
Area 720m²
Editor Inwon Seo | **Photograph** César Béjar (Except Separate Caption)



1. 이곳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도리토리(TORI TORI)의 다섯 번째 매장이다. 일본의 문화와 건축 요소가 매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2. 매장 출입구에서 암시했듯이, 오크나무로 장식된 가구들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3. 목재 요소가 그리드를 이루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하나하나 보자면 연약해 보이고 색이 선명하지 않은 소재지만, 그것이 하나의 세밀한 구조로 합쳐졌을 때는 더없이 강렬한 디자인 요소가 된다.

©Genevieve Lulkin

TORI TORI Santa Fe is the fifth project from the renowned line of Japanese restaurants in Mexico City, and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a corporate building in the Santa Fe district.

Inspired by the subtlety and sobriety of Japanese craft skill, the serene and monochromatic atmosphere embraces the space. The inspiration was embodied successfully. At a glance, it has distinct Japanese tone so that it seemed to be designed by a Japanese design studio. Two hanging elements made in holm oak make the scale of the space look better with the calm atmosphere. Of monumental size and expression, their texture evokes Samurai armor; above all, the

breastplate known in Japanese as dō. One of these elements demarcates the area for "grab and go" food. The larger of the two rises up over the main teppanyaki table as a cylindrical extraction hood, both transformed into lighting objects that define and delimit, thanks to their scale, the two poles of the restaurant.

The main wall, home to the sushi bar, is swathed in low-reliefs designed centering around the abstract stylization of the Kanji characters with pure geometric graphics. Besides the central area, the restaurant also boasts a terrace with teppanyaki tables and a private dining room. This is a successful case to achieve the spacial sense beyond its scale.



©Genevieve Lutkin

4. 목재 가구가 가벽의 역할을 하면서 공간의 구획하고 동선을 정리한다.



4

©Genevieve Lutkin



©Genevieve Lutkin

5_ 전반적으로 어두운 매장 공간에서 빛을 머금은 목재가구는 대비감을 연출하는 동시에 묘하게 합일을 이룬다.



5



©Genevieve Lut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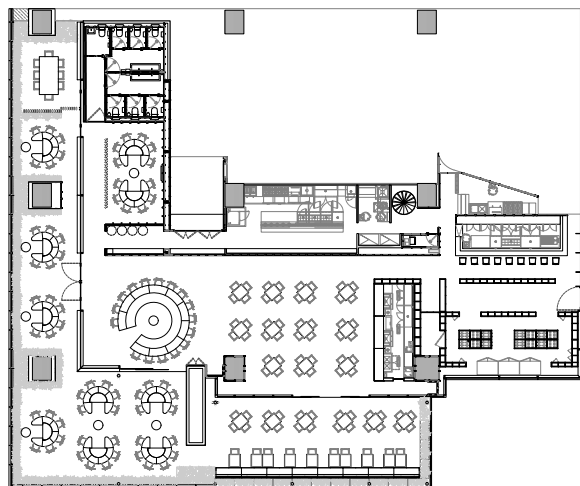
©Genevieve Lutkin



©Jaime Navarro



©Jaime Navarro



6. 공간의 핵심 포인트로서 총갑이라는 일본 고유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이 오브제는 공간에 안정감과 무게감을 부여하는 기능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